

STAFF



기획 • 신용우



조 명 • 김인환



무대감독 • 배성오



음향제작 • 정철



효과 • 장혜선



슬라이드 • 김경수

장 치 • 송길섭



太陽物産株式會社

釜山事務所



安 豊

- 태양물산(주) 부산사무소 과장대리
- ☎ 94 - 3345
- 부산청년회의소 회원

釜山大學校齒科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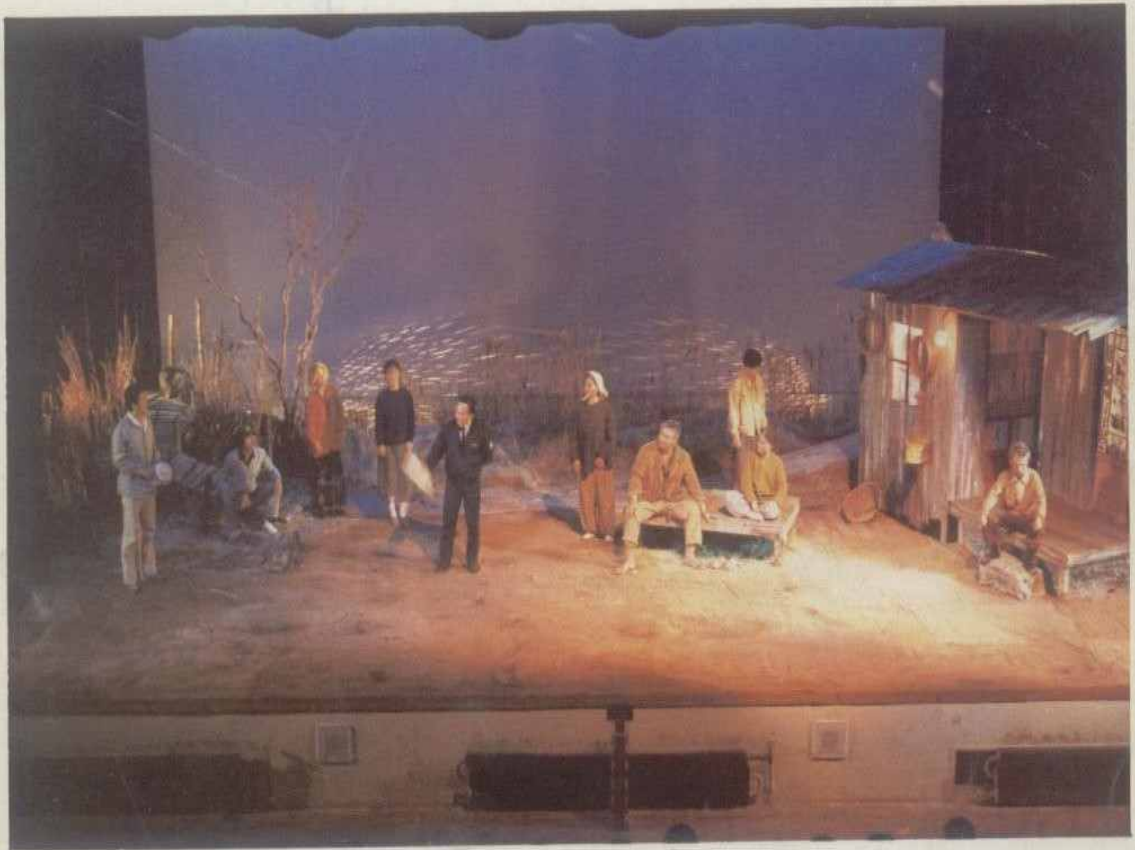
- 口腔外科學教室 -


助 教 授 金 兌 奎
齒 醫 學 博 士

釜山市 西區峨峨洞 1街10番地
電 話 : 26 - 0171 ~ 9
研究室 : (交) 568

제 5 회 전국지방연극제 최우수상 수상 기념공연

노인, 새되어 낳다



 극단 예술극장 제 27 회 특별공연

1987.6.26→28 시민회관 소극장

- 주최 / 부산직할시
- 주관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 · 극단「예술극장」
- 후원 / 한국예술총연합회 부산지회 · 부산상공회의소

뜨거운 채찍질



극단「예술극장」대표
이영식

올해의 오월은 무척이나 무덥고 길기만 했습니다. 2월 10일경, 중앙동 한 모퉁이의 조그마한 이층방에서 시작된 「노인, 새 되어 날다」팀은 삼백원짜리 우동으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3월의 「부산연극제」에 아무런 생각없이 참가하여 사십여일간의 급박한 연습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저 그렇게 보였었고 또 얻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모두가 마음을 조금씩은 비웠던것 같기도 하고…….

다시 4월과 함께 시작된 연습은 어물쩍하게 축하공연까지 이어졌고, 4개월간의 격투 끝에 전주에 마련된 예술회관의 특설링으로 떠나가게 되었지만 전 식구가 상이란 염두에도 없었고 그저 부산연극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두터운 겨울 의상으로 갈아입었던것 같습니다.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무더운 열기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저 명할 뿐이었고,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내 개인의 것이 아니며, 우리 모든 식구가 열과 성의를 다한 결과이며, 나아가 부산연극인 모두가 그토록 고심해온 나날의 결실이며 영광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시련을 밑거름 삼아 내고장 부산을 예향의 도시로 만드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라는 신의 계시로 여기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연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부산연극제」 심사위원님들과 연극계 원로, 선배님, 동료 여러분들의 깊은 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5년전 아동극단 「갈매기」에 입단시켜 오늘에 제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길러주신 장지완, 천재동, 신택용, 이영준 선생님과 많은 도움을 주신 김주호 장관님과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들과 JC 김운환회장님, 일신산업의 하기성 사장님, 한독여실의 정순택 교장님, 한샘학원의 제규환 원장님, 작가 시대버니카 이 자언에 참여한 여춘 여기자 스태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시

STAFF



신승연 작우



이정 무대감독



이진우 무대미술



김변회



정응재



김진보

□ 작품해설

「노인, 새 되어 날다」는 작년에 공연되었던 「울속도」를 기초로 하여 다시 만들어진 작품이다.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정신휴양지이며,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울속도」. 온갖 자연이 어우러져 빚어 만든 자연의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울속도에서 40여년을 살아온 토박이인 「권노인」. 그는 칠마다 찾아오는 철새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왔고, 갈대밭 억센 뿌리와 싸우며 농사짓고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혼 혼한 인정을 지닌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있고 딸과 함께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느날, 하구인 공사가 시작되고 정착민들은 적당한(?) 보상금을 받고 등짝이 휘도록 피땀흘려 개간한 정든 땅을 떠나야만 한다. 그 외중에 떠나살던 아들 내외가 나타나 보상금마저 가로채려 하고 권노인은 끝까지 투쟁하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히려 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울속도, 조금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 새롭게 정리되고 개간되어 옛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과연 여러 학자들의 엇갈린 주장대로 될 것인지?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이 맞닥뜨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 작품은 한인간의 땅과 자연에 대한 굳센 보호의지를 통해 현대인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극단 예술극장

제5회 전국지방연극제 최우수상 수상기념

극단 예술극장 제27회 특별공연

신 태 범/작

김 경 화/연출

신 용 우/제작

노인, 새되어 낳다



(대통령상 수상식 장면)

1987. 6. 26 → 28 부산시민회관 소극장